



우크라이나 농업부 밀 수출 한도 상향 조정

(2013.4.23. 로이터통신)

원제: UKRAINE AGMIN SAYS MAY LIFT WHEAT EXPORT CAP

23-Apr-2013 17:11

우크라이나 농업부는 거래소에서 500,000만 톤의 해외 수출을 허가하기 위해 남은 2012/13년도의 밀 수출 한도를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였다.

지난 9월, 정부와 거래소 연합은 가뭄이 있을 후 국내 소비에 대한 우려가 없을 만큼만 수출하기로 2012/13년 수출량 제한에 동의를 하였다. 주요 수입국들은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흑해 지역에서 신속하게 이동하였으며, 가뭄이 극심했던 러시아는 결국 수출 제한을 강요하였다.

우크라이나 정부는 2012/13년 밀 수출량을 550만 톤으로 제한하였고 그 후 630만 톤으로 제한을 완화하였다. 지난 달 농업부는 2012/13년 밀 수출 제한을 700만 톤으로 상향조정하였다.

그러나 거래소와 전문가들은 구소련으로부터의 재고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2012/13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밀의 상당량을 수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.

한 외국 무역업자는 추가적이 밀 수출 물량은 300,000~400,000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어느 컨설팅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밀 수확량은 2012년 1,430만 톤에서 2013년 1,99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.

우크라이나는 곡물연도 시즌마다 약 1,200만 톤의 밀을 소비한다. 농업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시즌 현재까지 밀 630만 톤과 옥수수 1,150만 톤을 포함하여 총 2,02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였다.